

팍팍한 삶 연극으로 위로 받으세요

‘실례합니다4’ 25일까지 공연일번지 무대에
‘보라카이 브라더스’ 1월6일까지 충장아트홀
‘고스트’ 1월13일까지 치평동 기분좋은 극장

한해가 저물어 가는 요즘, 팍팍한 삶을 위로하는 연극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는 것은 어떨까.

◇25일까지 ‘실례합니다4’
연극문화공동체 DIC는 코미디 연극 ‘실례합니다4’를 오는 25일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3가 소극장 공연일번지 무대에 올린다. 1989년 창단한 연극문화공동체 DIC는 ‘실례합니다1-3’과 ‘피는꽃 흐르는 물이로세’, ‘봄봄’, ‘내사랑 김복자’, ‘청혼 소동’ 등을 상연했다.

가수를 꿈꾸는 30대 백수와 국악천재로 관심을 받았지만 지금은 밤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황맹순, 그리고 이들을 먹여 살리는 황맹자는 404호에 함께 한다. 어느 날 이들 집에 들이닥친 도둑은 더러운 집안 꼴을 보고 청소를 하라 부녀회장과 맞닥뜨린다. 부녀회장은 도둑을 맹순의 신랑으로 착각하고 맹순이 언니에게 전해주려 1000만원이 든 봉투를 준다. 갑자기 돈 봉투를 받아 든 도둑은 흡사려던 약기를 두고 돈만 들고 출렁판을 친다. 하지만 도둑은 404호 식구들의 사정을 듣게 되고 이들과 팀을 결성해 오디션에 나가게 된다.

정문희 감독이 연출하고 은조롱 작가가 각본을 맡았다. 윤희철, 문진희, 이현숙, 권경선, 김장준, 임홍석이 출연한다. 평일 오후 8시, 토·일·공휴일 오후 5시·8시 공연. 전석 2만원(청소년 1만5000원). 문의 062-222-7008.

◇좌충우돌 코미디 ‘보라카이 브라더스’
녹록치 않은 현실을 웃음으로 승화한 연극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연극 ‘보라카이 브라더스’가 내년 1월6일까지 화-금요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6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충장아트홀에서 열린다.

백수 건달 기찬과 수찬은 호텔을 분양 받으면 보라카이에 평생을 지낼 수 있다. ‘호텔 드 보라카이’의 분양광고를 보게 된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천사’로 불리는 차갑수의 집을 털러 간 이들은 자원 봉사를 하는 자넬라와 농촌총각 달구를 만나며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맞는다.

연극이 펼쳐지는 1시간 40분 동안 조현민, 정태원, 홍성민, 황정원, 최예운, 김유민 등이 출연한다. 전석 3만원. 24일 오후 6시·9시, 25일 오후 3시·9시, 31일·1월1일 오후 4시, 26일·1월2일 휴무.

◇탈춤살벌 연극 ‘고스트’

극단 논다는 오는 1월13일까지 영국 영화감독 데이비드 린의 1946년 작품 ‘즐거운 영혼’을 연극 ‘고스트’로 각색해 무대에 올린다. 코미디 판타지 연극을 내건 ‘고스트’는 데이비드 린이 연출하고 렉스 해리슨, 콘스탄스 커밍즈 등이 주연을 맡은 원작 영화 ‘즐거운 영혼’의 내용을 살리면서 현대에 맞게 풀어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기분좋은극장에서 1시간 40분 동안 펼쳐지는 연극은 죽은 전처의 유령과 아내 그리고 남편 셋이서 한집에서



연말연시 재미와 감동으로 무장한 연극들이 광주 관객을 찾는다. 연극 ‘보라카이 브라더스’(위)와 ‘실례합니다4’.

지낸다 내용을 담고 있다. 미스터리 소설 작가인 상중은 재혼한 두 번째 부인 희진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중은 자신이 새롭게 구상 중인 심령추리소설에 필요한 소재를 얻기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 ‘육보살’을 집으로 초대하게 된다. 하지만 심령술을 치르는 도중 무당의 실수로 인해 의도치 않게 상중의 첫 번째 부인 한이가 집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상황은 꼬이게 된다. 한이는 상중을 독차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희진을 괴롭히고, 반면 한이가 보이지 않는 희진은 상중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살아있는 현 부인 희진과 죽은 전 부인 한이, 그 사이에서 난감해 하는 상중. 이제 사건의 불똥만 동거가 시작된다. 전석 3만원. 화-금요일 오후 8시, 주말 3시·6시(24일 오후 6시·9시, 25일 오후 3시·9시, 31일 오후 5시, 1월1일 오후 4시, 26일·1월2일 휴무). 문의 1600-668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마당극 ‘권번 꽃다이’ 공연 모습.

새단장한 마당극 ‘권번 꽃다이’

27~28일 광산문예회관

명품 마당극 ‘권번 꽃다이’가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을 찾아간다.

놀이패 신명의 대표 배우들이 꾸미는 ‘권번 꽃다이’가 오는 27~28일 오후 7시 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3월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김호준, 지정남, 김현경, 김혜선, 김은숙 배우가 출연하며 첫 선을 보였다. 배우들의 연기와 작품성이 입소문을 타 초연 뒤 서울 남산국악당 초청공연 열었고 올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내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또 문화예술전문지 ‘더 무브’가 지난해 선정한 ‘다시보고 싶은 명작 음악극’ 베스트3에 오르기도 했다.

‘권번 꽃다이’는 일제강점기 수많은 예인을 양성한 기생조합 ‘권번’의 이야

기를 다뤘다. 작품에는 ‘무진권번’ 동기 들인 소도, 채선, 남풍, 난주 등 네이 여인으로서는 어머니로서, 또 예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문화네트워크 ‘프랙탈’이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날 공연에서는 마당극 고수들의 연기에 김애리, 서희선, 이정현, 이채은 등의 젊은 소리꾼들이 합세한다. 이들은 권번시절의 소녀역을 맡아 예인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그들의 치열했던 삶을 풀어낸 예정이다. 또 ‘홍타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작곡가 김백찬씨의 음악에 소녀들의 노래를 추가해 듣는 재미를 더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기타리스트 박석주, 피리 연주가 전미향씨 등이 공연장에서 직접 연주한다. 전석 2만원(청소년·대학생 1만원). 문의 010-4898-729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I 시대 살아가는 아이들 어떤 생각할까

동화작가 노운서 ‘이세돌이 이겼다’ 펴내

AI 시대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동화작가 노운서가 ‘이세돌이 이겼다’(아동문예)를 펴냈다.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동시집에는 모두 60여 편의 작품이 담겨 있다. 저자는 요즘 아이들이 자연처럼 지라야 하는 권리를 빼앗긴 채, 최첨단의 가상적이며 증강된 현실에 불합치 살아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동시는 아동들에게 일상과 자연, 사물에 대한 통찰과 사고를 길러준다. 또한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기도 한다. 작품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형상화한 시들이 주를 이룬다.

‘감꽃’, ‘숨바꼭질’, ‘노랑나비야, 일어나’, ‘오늘 하루’, ‘우리 집 호랑이’, ‘노랑나비’, ‘나비’ 등은 어린이의 시선으

로 바라 본 율림이 있는 시들이다.

노 작가는 “동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하고 아름다운 언어의 기능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노 작가는 국민대 대학원 교육학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조선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선대 사법대 외래교수, 광주보건대 유아교육과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동강대 유아교육과 초빙교수로 있다. 지금까지 ‘노마의 진짜 꿈’, ‘황금매기’, ‘도깨비와 무지개떡’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캐롤·오페라...한·중·일 연주자들 성탄 전야 꾸민다

광주시향 살롱음악회
24일 문예회관 소극장

한·중·일 클래식 연주자들이 성탄 전야를 화려하게 꾸민다.

광주시립교향악단(사진)이 살롱음악회 ‘한·중·일 뮤지션과 함께하는 갈라콘서트, 위시 유어 메리 X-마스’를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연다.

1시간 40분간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에는 한국·중국·일본의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크리스마스 캐롤과 비발디, 브람스, 모차르트의 협주곡과 생상의 오페라 등으로 다채롭게 무대를 꾸민다. 이날 지휘봉을 잡은 중국 지휘자 리양 장은 비엔나 예술대



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이자 부감독, 상하이 음악협회 부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세계적인 솔리스트 페터-루카스 그라프, 조수미, 량량, 파울 바두라스코다,

류 고토, 린 하렐 등과 협업하기도 했다.

먼저 카운터테너 김대성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편곡된 ‘캐럴메들리’를 함께 부르며 무대를 연다. 이어 비발디의 ‘피콜로 협주곡 C장

조, 작품443’을 일본의 피콜리스트 우메즈 마사요시와 협연한다.

음악회 1부의 마지막은 일본 바이올리니스트 다카시 하마노와 광주시향 수석단원 첼리스트 최승욱이 브람스의 2중주 협주곡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협주곡 A단조, 작품102’의 1악장으로 호흡을 맞춘다.

2부 첫곡은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스, 작품28’로, 광주시향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 연주로 문을 연다. 이어 생상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바카날’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돋운다.

호른리스트 이운범(광주시향 수석)은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3번, 작품447’을 시향과 협연하며 호른의 깊은 음색을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리로이 앤더슨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연주하며 성탄 전야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문의 062-524-508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금강버тика
버тика, 커텐,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하얀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차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정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메타루이펜션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 옆)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
☎061)383-2698, 010-3603-2698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